



6면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위한 제도 개선을"

전주매일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음 2월 3일) 제27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전북도, 정부 방침에 따라 28일까지

상견례·미취학 아동 등 예외로 8인까지만 허용
유흥시설 오후 10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해제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순부터 8주째 300~400명대 환자 발생으로 유행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내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유흥시설은 수도권 22시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적용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도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등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2월, 300인 이상 사업장 내 외

국인 근로자 3,980명 PCR검사에 이어 소규모사업장 내 외국인근로자 2,213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현장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집단 면역체계를 위한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백신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하며, 필요시 코로나19 구상권협약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PC방, 실내체육시설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조세심판 청구 끝에

국세청, 공무원 포상금에 세금 부과 패소

노조 "지금이라도 잘못 부과된 과세, 도내 관할세무서가 직접 환급절차 진행해야"

국세청이 공무원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전북지역 관할 세무서가 환급에는 나 몰라라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반축을 하고 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은 광역연맹과 함께 국세청의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부당과세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1월 5일 조세심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2014년 공무원 포상금에 매겨진 소득세에 대해 2020년 5월 국세청이 해당 공무원에게 부과한 세금이다.
50년 넘게 공무원 포상금에 세금이 매겨진 적은 없었기에 전북도청(소방공무원 포함) 및 시·군 공무원들은 당황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세금 문제를 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제때 세금을 납부했다.

전북노조와 광역연맹의 조세심판 청구 끝에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공무원의 포상금은 비과세라고 해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갑질 행정을 펼쳤음에도 전북지역 관할 세무서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처리에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본인이 관할 지역 세무서에 세금반환 고충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청하지 않고 있는 대상이 부지기수이다.
전북노조는 전북지역 관할 세무서 항의 방문을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 환급절차에 적극행정 요구 및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개인 정보보호법 등을 들며 일체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북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공무원(소방)들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수해, 산불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현장공무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며 과세 포상금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보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 부과된 과세에 대해 전북지역 관할세무서가 직접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세청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민에게 믿음 주는 공정 세정의 실현'을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지난 12일 부안군 변산면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내 해양안전체험관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상시 해양안전교육 가능 부안 학생해양수련원 내 '해양안전체험관' 개관 실내 교육장 확보로 실제 사고 가상 교육 실시

체류형 실내 체험장인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안군 변산면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내에 총 예산 6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안전체험관을 준공,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전북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발달단계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과 실내 안전체험을 통해 해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11월 교육부의 '소규모 안전체험관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 연면적 1,078㎡(약 326.7평)의 1층 지상 1층 규모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체험위주의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해상사고 대처능력 함양,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용,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활용 연수, 교육연수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직원 안전 체험과정 연수 등을 통해 연간 약 5만명(코로나 상황 종료시)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부날씨 및 해수온도와 무관한 상시 교육(사고 선박탈출, 이안 튜탈출, 해상인명구조 등)이 가능한 실내 해상안전교육장 확보를 통해 실제 해상안전사고를 가상한 체계적인 해상안전교육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정은기 기자

올해도 신나는 예술버스 '출발~'

도내 예술가들, 문화소외지역 순회 도민 문화 향유기회 제공



예술가들이 직접 도내 문화소외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공연단과 운영기획사가 전용버스를 타고 시·군 명승지 혹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다채로운 공연

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0회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연은 1회당 60분간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주로 대중가요, 민요, 국악연주, 전통무용, 재즈댄스, 비보잉 등에서 모두 50여 개 공연단체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군 관광지, 문화유적지, 숨겨진 명소 등을 찾아 비대면 영상공연을 병행하고, 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3355 무주관광 100선 여행추천

오늘이 아름다운 무주

[덕유산 중봉]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